



동쪽 성산에서 시작하여 서귀포 해안과 감귤원을 돌아 서쪽 모슬포에서 서귀포 올레를 마무리하고 끝을 이어 제주올레를 시작한다. 중간간 제주자연생태문화체험관에서 해안으로 다시 중간간으로 해안포구로 달려 탐라발생지에 왔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제주 중심을 걸으며 어제의 제주를 기억으로 보내고, 오늘의 제주를 즐기고, 창달되어 가는 미래의 제주를 그리는 북동해안 백사장을 바람 따라 걸으며 올레 종점 지미봉을 넘는다. 그때나 지금이나 해를 띄운 성산일출봉은 한라산을 넘기기 위해 오름들 사이로 뉘엿뉘엿 넘겨 보내고 있다. 그렇게 제주 올레는 저물어갔다.

올레 12길

해안을 따라 제주 서쪽 자락에서 노을과 함께 서귀포 올레를 마무리하고 다시 제주 바다로 향하는 올레다. 무릉리 생태학교에서 용수리포구 절부암까지 들과 바다, 오름을 따라 이어지는 아름다운 길이다. 무릉들을 가득 채운 양파, 마늘, 양배추, 브로콜리의 광활한 농경지는 생태연못을 헤치지는 못하고 그 마지막 끝자락에 녹남봉(해발 100.4m, 비고 50m, 원형분화구)을 달랑 매달아 놓고 바다로 향하며 신도앞 바다를 깊은 옥빛으로 물들인다. 깨끗하다. 상쾌하다. 신선하다. 수월봉에서 제주의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상쾌한 북서 해풍에 마음의 묶은 때를 다 찢어내고, 차귀도와 신창 풍력발전기 날개들이 펼치는 아름다운 제주 바다에 감탄

사를 연발하면서 청량한 마음의 사진을 찍는다. 수월봉(녹고물오름, 해발 77m, 비고 73m, 서부최고 조망봉) 절벽 곳곳에 솟아나는 녹고물물을 닦아드리면서, 1만8천 년의 시간을 들여다보는 길·세계지질공원 화산학의 교과서 영알해안을 따라가면 술술 유혹하는 자귀내 해안 갯내음과 준치 냄새가 발길을 멈추며 호종단의 차귀도와 설문대할망의 장군바위, 영화 이어도 얘기로 노닥거리며 낙조를 기다려본다. 길을 재촉하면 또 하나의 오름 당산봉(차귀오름, 표고 148m, 비고 118m, 알오름·복합형)이 내주는 선택길 생이정길을 마무리하고 마음을 정결히 하였다. 용수리포구의 성김대진신부

올레12길 수월봉에서 보는 차귀도



제주표작 기념관과 고씨 부인의 절부암節婦巖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뚜벅이 대정읍 중산간서로 좌기동(761번) → 제주자연생태문화체험골 스탬프장 370m

올레 13길

쌀쌀한 초봄의 날씨가 몸을 움츠리게 하는 입춘지절이다. 해안에서 다시 내륙 숲으로 들어가는 숲길 올레 13길이다. 용수저수지와 숲을 지나 옷뜨르권역 아홉굿테마마을을 의자에 앉아 볼 틈도 없이 눈으로만 구경하고 숲길, 발담, 잣성을 따라가면서 고마운 마음을 잊을 수 없다. 숲길을 튼 특전사 요원, 순찰꽃말의 경찰, 차를 준비해 주신 고사리숲 쉼팡의 조수리 주민께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처녀귀신에게 목뒤덜미라도 잡힌 듯 오싹한 몸을 움츠리며 겨우 부슬 부슬비 내리는 뒷동산아리랑길을 빠져나오며 한시름 놓고 서야 자락·등성이를 따라 아깁없이 길을 내주는 저지오름(덕·오름, 해발 239m, 비고 104m, 원형분화구)에 올랐다. 등성이에서 분화구 쪽으로 도망가는 그 노루는 앞다리가 긴 놈인가? 턱이라도 다치지 않았으면 다행이다. 전망대에 오른들 무엇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처마 짧은 우산은 겨우 머리만 비를 막아준다. 물빛으로 물든 바닷가랑이를 차고 나오는 발길은 무겁고 처량하기 한량없다. 저지리마을회관에 잘 정돈된 채 부동자세인 올레 12/13/14-1 스탬프는 애치로이 서로를 위로하면서 나를 반긴다. 몸도 마음도 차가워갈 길도 정리되지 않는다. 어떻게 가야 되지? 동광육거리로... 고산으로...

뚜벅이 일주서로 용수리(202번) → 용수포구 절부암 스탬프장 1.4km

올레13길 용수저수지



올레14길 월령마을 선인장 자생지

올레 14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뚜벅이의 마음은 산만하다. 어떻게 저지리로 가느냐가 관건이다. 13길에서 낭패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확신은 없다. 최악의 경우 차라도 얻어야 한다. 저지마을 올레13 종점, 올레14와 14-1길 시점이며 여기 있어야 하는가? 무릉생태학교와 별반 차이 없다. 들·날 머리가 고생의 시작이며 끝이다.

저지고망숲길, 조개왓, 큰소낭숲길, 굴렁진숲길, 무명천산책길, 월령숲길을 걷고 걷고 또 걸었다. 사실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다. 곳곳에 풍수해로 할퀴 곳자왓이 올레꾼의 마음을 애태웠고 훼손된 안내리본도 길 잃기는 딱이다. 무명천계곡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올레는 외롭고 지루하다. 이 천천따라 쪽 가시면 시원한 바다가 나옵니다라는 역방향 탐방 올레꾼 말 한마디에 다리 힘을 올려 월령선인장 자생지에서 건천 무명천을 되돌아본다. 곳자왓의 짐을 내려놓고 선인장보호 목적로를 따라 걸으며 빌레에 붙어사는 강인한 선인장의 삶을 엿보다 찢림과 간지럼을 받았다. 비양도를 가까이 멀리 끌어당겼다 밀쳤다 하면서 그 한쪽에 백옥같은 백사장과 야자나무를 올려놓으니 이곳이 이국異國 그곳이다. 들머리 길을 줄여주신 고마운 제주아저씨와 함께 올레 14길이 기억창고 어디에 어떻게 자리 잡힐까? 머릿속에서 빙빙돈다.

뚜벅이 동광육거리 동광환승정류장(중산간서로 저지오름 771, 784, 820번) → 스탬프장 20m

올레 14-1

어제 태풍 차바CHABA가 제주를 핏돌고 지나갔다. 저지에서 무릉까지 이어지는 무성한 숲의 생명력, 초록의 힘이 풍성한 이곳도 온전하지는 못했다. 올레지킴이에 한발 앞서 평상시에도 험하고 으스스하기로 소문난 이곳 인향동 무릉·청수·저지곶자왈을 홀로 접어들었다. 15시 이후 출입하지 말 것, 길을 잃지 말 것, 표식 놓치지 말 것, 혼자서 가지 말 것(특히 여성), 일부 구간 통신장애 발생, 인가人家 없음 등과 같은 주의·경보 표지판에 더해 4.3 유적지 한수기 꽃과 으스스한 잡나무 숲속에 들어서면 금방 등골 오싹함과 곧추서는 찌릿한 머리카락을 느낀다. 다행히 행방을 알려줄 수 있는 통신기지국을 보면서 조금 위안을 느낀다(현재는 시점이 인향동에서 오설록으로 변경되었다). 갑자기 행한 올레길엔 파란 하늘과 눈 부신 태양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끝없이 펼쳐진 오설록의 녹차밭과 북적대는 관광객들은 곶자왈의 오싹함을 말끔히 씻어주었고, 감로수 한잔은 생기를 불어넣었다. 조금 가벼운 마음이라 저지곶자왈 식생들도 눈에 들어 왔다(백서향조사지). 토실토실 살찐 말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으며 한라산과 봉긋봉긋 솟은 오름들과 어울려 목가적 풍경화를 펼쳐 보이는 문도지오름(표고 260.3m, 비고 55m, 동향말굽형)에서 자연의 품에 안겼다. 저지문화예술인촌은 마중오름(표고 168.8m, 비고 44m, 남향말굽형)을 자락으로 삼았고, 방림원(方林院 세계야생화박물관)은 그 곁에서 이름 덕을 보려 하고 있다.

 **뚜벅이 영어교육도시코차로(151, 255번) → 오설록**
티뮤지엄 녹차밭 스탬프장 400m



올레15A코스 영세생물

올레 15길

한림해안로를 따라가다 대수포구에서 일주서로를 건너기 전에 최근 개설한 B코스와 헤어지면서 중산간의 마을과 밭, 오름을 돌아 다시 고내포구에서 아름다운 해안을 산책하고 온 B코스와 만나는 산과 바다가 함께하는 올레다. 한수리조개잡이체험 해안빌레 솥대에 내려앉아 쉬고 있는 진짜와 가짜 갈매기와 기러기를 확인하고 바다와 작별을 고하고 마을올레 시작이다. 더 넓은 궁들왓에서부터 시작하는 농로를 따라가면 송이를 밀쳐내며 자라는 밭작물들의 강인함을 볼 수 있고, 밭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은 못들을 만나고, 금성천변 ○정사에서 잠깐 쉬면서 행운의 제비집을 만난다. 난대림숲 금산공원錦山公園의 평온함과 인자한 효자마을의 전통을 지켜보고 있는 과오름(표고 115m, 비고 85m, 북서향말굽형)과 광금8경을 엿보면서 훼손되어가는 도새기숲길을 가로질러 마지막 건강을 챙겨주는 고내봉(표고 175m, 비고 135m, 북합형화산체·5개의 봉우리)에 올라 올레 15A 길을 되돌아보고 바당올레를 만나러 간다.

올레14-1길 문도지오름의 목가적 풍경





올레15B 각지과물해수욕장

새로 단장·개설했다는 올레 15B코스는 숙이와 함께했다. 수원리사무소에서 한림해안로를 따라가는 해안올레다. 귀덕포구와 한수풀해녀학교, 귀덕해안로의 제주영등항망신화공원, 각지과물해수욕장, 한담산책로·곽금8경올레, 애월해안산책로를 따라가면서 봐도 봐도 싫증 나지 않는 옥색 바다와 새하얀 모래사장의 어울림과 해안 절경에 혼줄을 놓았다가 애월명소에서 여행의 기쁨과 소중한 추억을 담는다.

 **뚜벅이** 한림로 한수리(202, 292번) → 한림항도선대
합실 스탬프장 510m

올레 16길

작은 고내포구에서 해안을 따라 구엄까지 걷다 멈추기를 반복하면서 가야 하는 낭만이 가득한 애월해안로를 따라가는 올레다. 넓은 소금빌레가 펼쳐진 구엄포구를 지나면 길은 한라산을 맞으려 산간으로 방향을 튼다. 수산봉(물뽕, 표고 121.5m, 비고 92m, 원추형)이 품은 물길을 지나면 지친 올레꾼을 위한 쉼터와 몸단장을 위한 포토존(중간스탬프)이 맞이한다. 도열한 해송들은 역사의 현장 향파두리로 발길을



올레16길 구엄돌염전

이끌고 존재가 무색한 안오름(안악토성, 표고 186m, 비고 21m, 원형)자락 토성을 빠져나오면 제주 사람들이 즐겨 찾는 봄꽃 4대화왕길(전농로·종합경기장길·제주대학교길)의 하나인 유채와 벚꽃이 만발한 광성로와 아름다운 고성 숲길, 계곡 길 올레 16길이 서로 유혹하는 사이 어느새 광령마을에 다 닿고 나서야 일장춘몽에서 깨어났다.

이런저런 사연을 담아 새겨놓은 다락 쉼터와 의로운 시대의 여성(義女 홍윤애)을 기리기 위해 세운 이야기판과 종탑에서 잔잔한 감흥을 불러넣은 사진 한 장을 챙기는 발길에 감정도 녹아들었다. 멀리 물에서 달려온 파도가 애월해안 현무암에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는 바다의 용트림을 토해내고, 부서져 휘날리며 단애를 훌쩍 뛰어넘는 하얀 물보라 춤사위는 장관이다. 쪽빛 바다를 끼고 가는 해안누리길-엄장해안길, 금방이라도 소금 한 되박 쏟아져 담을 것 같이 햇빛에 빛나는 소금빌레, 삼별초 항몽抗蒙의 현장과 고성숲길 속의 소박하고 아담한 산간마을을 하나로 이어가며 보여준다.

 **뚜벅이** 일주서로 고내리(202, 270번) → 고내포구
스탬프장 600m

올레 17길

제주 1년 살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해 한겨울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찬 바람 몰아치는 올레 17길 해안길이다. 도두봉(도돌오름, 해발 65.3m, 비고 55m, 원추형)에 올라 하늘을 나는 그렇게 큰 물체 비행기를 보며 손 흔드는 멋쩍음도 보았다. 그리고 입춘·하지지절에 세상의 근심걱정이 사라진다는 무수천숲길, 광령천길을 따라 무심히 발걸음을 옮긴다. 수십길 낭떠러지 아래로 보이는 무심천은 용암을 깎아 골과 곁이 아름다운 넓적바위를 만들고 가장자리는 하늘



올레17길 용두암

을 가린 해송, 잡목들을 휘감고 오르며 조그마한 햇볕이라도 구걸하는 넝쿨들도 짝 찬 숲을 품고 있으나 모두 숨쉬기조차 힘겨워하는 모습이다. 천년 수확을 끝낸 보리밭은 은빛 보릿대로 반짝거리며 어린 옛 추억을 끌어낸다-보릿대 난가리에서 놀면서 보리수염에 괴로워했던 지난 기억이 펼쳐지고 있다. 꽃자왈과 상수원 보호구역이 대치하는 광령천 하류로 발길을 옮기면 옛 선비들이 달빛 아래 풍류를 즐겼다는 외도 월대(月臺)와 내도 발밑에서 잘잘거리는 알작지 해안이다. 올레와 외도물길 20리길이 만났다 헤어진다. 방삿길과 함께하는 목관아지와 무근성을 지나면서 제주성지를 둘러보며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떠났다. 왁자지껄한 속세소리와 사람 사는 냄새에 정신 차리면 동문재시장에서 빙떡 하나 먹는다. 산지천 해송 스탬프(간세라운지로 옮김)에 걸터앉아 제주사람들의 과거 살아온 모습과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느꼈는지 되돌아본다.

 **뚜벅이** 광성로 광령1리사무소(291, 455번) → 스탬프장 60m

올레 18길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제주에 일하러 온 고향친구(비오)와 같이한 올레길인데 제주날씨는 우릴 처량한 훌레비로 만들었다. 삼양해안 빗길을 걸어도, 시장 선술집에 앉아 있어도 청승스럽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나이에 걸맞게 원당봉(삼척칠봉, 높이 170.7m, 북향말굽형)에서 시작해 삼양검은모래 해변, 해안누리길-삼양역사올레길, 별도봉(높이 136m, 원추형)·사라봉(높이 148.2m, 북서향말굽형, 영주10경 사봉낙조)을 거쳐 동문시장에서 회포를 풀기로 하였는데 날씨는 우리편이 아니었고 제주는 우리와 달랐다. 별낭포구 국수집에서의 또 다른 올레꾼과의 겸상과 씬 없이 쏟아져 나오는 제주

말에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동문시장 빙떡 단체주문에 발길 돌려야 했고, 회초장집에서의 회와 매운탕은 제주 관광객 뭉이였다.

제주 관광객의 떼를 벗고 숙이와 함께 가을 올레 나섰다.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조천만세동산에서 삼양검은모래 해변까지다. 만세운동이 한창이던 때는 아니지만 그 열은 새기고 포구를 따라 조성된 마을길을 따라가는데 한 집 건너 용천수다. 신촌포구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빌레와 뱅딕의 다툼을 달래는 야자매트길을 따라 닭모루 전망대에 오르면 시비코지까지 이어지는 바당길이 숨을 뿜어주는가 하면 숨을 멈출 만큼 장대한 풍경이 가슴을 친다. 남생이못의 유혹도 떨쳐버릴 수는 없었고, 원나라 기씨황후의 소원 풀이 원당봉에 다시 올라 못다 보여준 제주향과 화북포구의 어울림을 보았다. ...호미같은 해안가를 춤추며 달려온 파도/올레길 걷고 있는 나를 보고 하는 말/찌든 몸 검은 모래로 찼질하고 가라는... 삼양동연가 시비에서 제주시 원도심↔조천 올레를 마무리했다.

 **뚜벅이** 제주시 중앙로(312, 315, 332, 351번) → 간세라운지 120m

올레 18-1길

화창한 5월 중순 배멀미를 느낄 즈음 낚시꾼과 관광객은 상추자향에 닿았다. 환영 제주올레 18-1코스 - 추자초등학교 교육가족 일동의 환영을 받으며 최영장군 사당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올레꾼들은 자신의 시간을 올레시간과 배시간에 맞춰야 했다. 빠른 걸음은 점산곶(點山串, 봉글레산(해발 85.5m) 등산을 마치고 다시 마을로 들어서 순효각(純孝閣, 처사각處士閣) 앞에서 추자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본다. 산



올레18길 닭모루

책길을 따라 추자등대전망대에서 사람이 사는 4개의 섬과 아무도 살지 않는 38개의 섬이 추자도라는 것을 떠올려본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정말 멋지구나. 북쪽으로부터 직구도, 수령섬, 한 점 같은 염섬, 예도, 저 멀리 횡간도, 미역섬, 큼직한 추자군도, 보론섬이 보이고 망망대해를 따라 가면 남쪽으로 수덕도, 청도, 박미역섬에서 바로 코앞에 섬 생이까지 좋다. 간혹 보이는 통신철탑이 있긴 하지만 고맙게 생각하면 그것도 장식이다. 전망대에서 나바론절벽길을 뿔뿔 날아 바랑케길 십터를 거쳐 추자교까지 왔다. 마을버스가 있기는 하지만 나의 시간을 맞춰주지는 않는다. 묵리고갯길에서부터 길을 잘못 들어 중간스택을 찾아 헤맸고, 어쩌다 보니 예초삼거리로 빠져서 돈대산(해발 164m)에 올라 하추자의 서운한 마음을 달랠고, 묵리고차로에서 흘러간 시간을 확인하고 추자교를 건넜다. 영흥십터에서 하추자도 북쪽 해안을 바라보며 아쉬움을 남겼다. 추자도의 올레는 재기재기올레가 되었다. 해를 넘겨 숙이와 같이 한 추자도의 또 다른 모습은 관광이었다. 용듬병과 나바론하늘길, 우도 등대와 바랑케길, 모진이해수욕장, 황경한의 묘, 신대산전망대와 모정의 십터, 눈물의 십자가, 예초항, 엄바위장승. 이제는 알고 있기에 순환버스를 기다린다.

 **뚜벅이**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 → 상추자도항 대합실
앞 스탬프장 40m

올레 19길

물빛 고운 바다에서 꽃향기·술향 가득한 산으로, 밭담을 굽이굽이 돌고, 빌레·벵디를 이리저리 쏘아대다 다시 바다로 향하는 조천~김녕 올레다.



올레19길 함덕서우봉해변

제주의 올돌목이며 땅끝과 가장 가깝다는 관곶官串에서 83 km 떨어진 해남 한번 쳐다보고, 오달이담陽塔과 생이담陰塔이 마주 보며 교신하는 신흥리방사탑防邪塔, 함덕리 주민들의 애환과 정성이 서려 있는 서우봉 숲길, 애기무덤의 혼을 달래주고 있는 너븐송이 4.3 기념관에서 숙연해지는 마음을 달래며, 해안누리길 따라 걸으며 물때 맞춰 모습을 나타내는 일몰이 아름다운 물개를 닮은 섬 다려도[달려도]를 뒤로하고 동북·북촌 풍력발전기를 가장 가까이하면서 운영도로·임도·올레길로 나뉜 옛 숲길을 산책하는 별리진동산길을 산책하면서 들꽃꽃향기 듬뿍 품고 해안정원을 조성하고 있는 날개 달린 간세뜰팡을 만났다. 조천만세동산에서 신흥, 함덕, 북촌, 동북을 거쳐 김녕까지 가면서 바다와 오름, 꽃자왈과 빌레, 벵디 그리고 아담한 포구마을 풍경들이 장면을 바꿔 가면서 펼쳐지는 올레에서 제주민의 삶과 제주의 자연과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충실한 올레가 되었고 김녕빌레왓길이 다음을 약속하였다.

 **뚜벅이** 신북로 조천만세동산(201번) → 스탬프장 50m

올레18-1길 상추자항





올레20길 김녕 발담

올레 20길

바람의 섬 제주! 그 바람이 제주의 자연을, 제주말을, 제주 돌담을, 제주문화를 만들었다.

김녕 해맞이해안로를 따라 월정·평대·세화 해녀박물관까지 이어지는 바닷올레로 유일하게 오름과 꽃자왈을 거치지 않는 그야말로 제주바람을 만나면서 평탄한 해안가를 따라 아름다운 제주바당을 볼 수 있는 올레로 김녕월정지질트레일, 제주환상자전거길(김녕세기해변길)과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외롭지 않는 올레길이다.

빨간등대, 풍력발전기와 파란 바닷물이 그림엽서 같은 세기알 해변, 도대불道臺火 조간대潮間帶, 지오하우스제주돌집, 청굴물, 신조어인 팥도라네[팥돌+안에] 조형물과 아름답게 예술성을 가미한 건물 벽장식물 들을 눈으로 즐기며 머리에 새겨지는 김녕은 인상 깊다. 세계자연유산마을 월정리! 그 바닷가를 따라가면서 현무암에 새겨 놓은 자연의 예술 품에 홀려 정신줄 놓고 빌레·벵디길과 포구안길을 해매면 현무암과 백사, 옥색의 바닷물이 다시 슬며시 나타나면서 흐트러진 마음을 진정시킨다. 젊음과 낭만의 카페 해안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월정해안이 여기다.

민속오일세화시장(5일과 10일)에서 푸짐하고 흥미로운 시장 음식을 맛보고, 사고파는 흥정에 넘치는 인심을 받아 길을 마무리한다. 어느 벽에 새겨진 내 어깨와 세월에 지고 온 것은 꽃이었더라는 해녀의 삶을 생각한다.

 **뚜벅이** 구좌로 해녀박물관입구(201, 260번) → 해녀 박물관정원 스탬프장 300m

올레 21길

제주올레 마지막 길 21길은 구좌읍 바다를 바라보며 마을과 발길로 1/3, 바닷길로 1/3 그리고 오름으로 1/3 등 제주 동부의 자연을 고르게 체험하면서 동쪽 땅끝을 향해 걷는다. 하도마을 돌담길을 벗어나 발담을 따라 도착한 곳은 웅장한 돌담 별방진이 돌 많은 제주임을 증명해주고 해맞이해안로를 안내한다. 해맞이해안로를 따라 걸으면서 현무암에 부서지는 하얀 파도를 눈이 아프도록 담을 수 있고 보일락말락 토끼섬의 하얀 문주란 꽃송이가 애를 태우고 잘 단장된 올레길은 제주 특유의 풍광을 오롯이 보여주고 경험하는 유종의 미를 거둔다.

하도리해변을 지나면 해안도로를 떠나 널찍널찍한 밭, 올망졸망 밭들을 경계 짓는 발담길로 접어들고 그 끝에 지미봉(地尾峰 해발 166m, 북향말굽형화구)을 세워 가파른 정상길과 완만한 돌레길로 마지막을 장식한다. 정상에 오르고 나면 안 올라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라는 벽찬 감흥을 억누를 필요 없이 환호성을 지르면 된다. 올레의 시작인 시흥초등학교, 두산봉과 당근·감자밭이 한눈에 들어오고, 푸른 제주의 동쪽 바다에 누워있는 소에서 물뱀으로 변신한 우도와 성산일출봉의 선명한 실루엣을 따라가면 용눈이, 다랑쉬오름이 있는 제주동부 오름군락들이 밀려온다. 올레의 여정을 파노라마처럼 펼쳐놓고 바라보고 싶다면 한치 밭 앞에 펼쳐진 종달마을의 형형색색 지붕은 한숨 돌린 여행자의 심장을 다시 요동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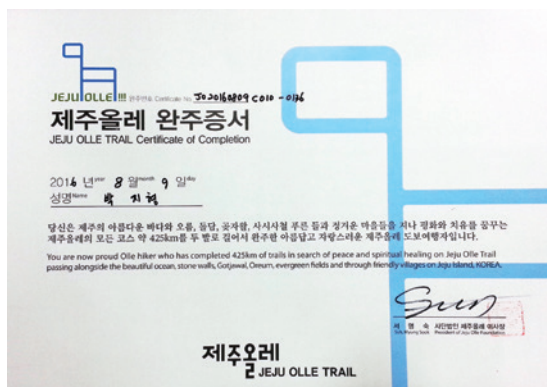
 **뚜벅이** 일주동로 종달초등학교(201번) → 종점 종달 해변 스탬프장 1.2km



올레21길 지미봉에서 본 종달마을과 오름군

올레 완주

2016년 8월 9일 화요일 그날도 무척 더웠다. 제주시 관덕로 간세라운지에 들렀다. 올레 완주를 등록하기 위해서다. 올레 수첩을 손에 쥐기가 엇그제 같았는데... 짧은 해를 원망하며 한겨울 제주 서북부 황야를 났 나간 사람처럼 언 손을 녹이며 해매야 했던 기억들, 현무암과 백사, 옥색 바다를 품은 제주 해안과 절경들에 났을 잃고 길을 헤맸던 해안 올레, 한라산에서 바다로, 해안에서 한라산으로 향하는 오름과 꽃자왈을 따라가며 아픈 다리를 위로하고 다그치며 시간을 맞췄던 내륙 올레, 제주민의 고달프고 힘든 삶의 모습과 아픈 역사의 현장을 찾아가면서 마음 아파 울먹거리고 일제의 노역 현장에 분노하면서 놀명쉬명 할 수 없었던 올레가 주마등처럼 스쳐 갔다. 진한 감동을 마음으로 느끼며 건강한 신체에 감사하고 활기찬 제주 생활을 기대한다. 사단법인 제주올레에 감사한다. 폭삭속았수다! 🐼



제주의 탐방길은 안내 팻말과 리본으로 말한다. 올레길을 시작으로 둘레길, 숲길, 역사 탐방길 등 탐방객을 안내 배려해주는 제주 사람들의 섬세한 손길과 따뜻한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주 문화

제주토속음식[낭포밥상] : 제주 사람들의 일상식을 낭포밥상이라 부른다. 상 한가운데 밥이 담긴 낭포(양푼)를 두고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떠먹으면서 한 끼를 해결했던 제주식 상차림으로 보리혼밥, 된장국에 아재, 해조류, 어패류 등의 신선한 현지 식재료가 계절까지 담겨 곁들여진다. ○의 낭포밥상에서는 쌍노물샬러드에는 푸른콩된장을 드레싱으로 곁들이고 낭포에 담겨져 나오는 톳/감자밥은 제주 산디쌀로 짓는다. 바릇국과 접적빠국, 돔배고기와 자리젓, 전복찜, 빙떡, 신다리 등 제주에서는 옛날부터 흔히 먹던 음식에 감귤즙, 송아기떡 후식은 물사람들이 제주의 문화를 한껏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한 끼가 된다. - 향토요리연구가 양용진



오늘은 선물이니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으며 살아야

☞ [] 제주방언, () 보충설명

☞ 정보검색 : 올레정보 www.jeuolle.org